

中古漢語 照二系の 介音 탈락 시기 문제 고찰*

閔智媛**

<목 차>

1. 서론
2. 外轉 照二系 介音의 탈락
3. 內轉 照二系 介音의 탈락
4. 결론

1. 서론

照二系는 2·3등운을 막론하고 《古今韻會舉要》에 이르러 대부분 개음¹⁾이 없는 字母韻에 귀속되었다. 이는 본래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없었던 2등운뿐만 아니라 3등운에 속하는 照二系 역시 그 개음이 이미 근고한어 이전에 탈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운서인 《蒙古字韻》과 《中原音韻》에 더욱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이들 운서에서는 照二·照三·知系 세 개의 성모는 합병되었으나, 反切下字는 照三·知系, 그리고 照二系의 反切下字 두 류로 나누어진다. 이는 근대한어의 음운체계 역

* 본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중고한어에서의 개음은 두 가지로, 습기 개음과 洪細를 구분 짓는 세음성 자질의 개음이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은 후자에 국한되며, 표기 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간단히 '개음'이라고 칭하고, 합구 개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습기 개음'이라고 명시하도록 하겠다.

시 마찬가지로 照三系 및 知系에는 여전히 3등운에 개음이 존재하였으나, 照二系에는 개음이 탈락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李新魁 1984:472-273)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은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탈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黃笑山(1991:180-183)은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서 照二系는 外轉의 경우 3등운에서의 개음의 탈락으로 인해 2등운과 뒤섞이게 되었으며, 內轉의 경우 3등 개음의 성격이 변하여 주요모음화 되는 과정에서 3등운은 물론 1·4등운과도 차별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麥耘(2002:162) 역시 照二系는 후기 중고한어에 이미 3등운에 개음 탈락이 완성되어 2·3등운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보았다. 이들 학자들이 이렇듯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탈락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照二系가 등운도 상에서 모두 2등간에 배치되어 있음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기존 학자들의 연구는 照二系 개음 탈락의 완성 시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중고한어의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흔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切韻》系 운서 및 기타 음운 자료에 나타난 중고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의 탈락 흔적을 고찰함으로써,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한 시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外轉 照二系 介音의 탈락

본 장에서는 《廣韻》 外轉 照二系의 又音を 통해 개음 탈락의 흔적을 살펴 보도록 한다. 又音은 又讀, 一字多音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글자가 하나 이상의 독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切韻》系 운서에는 '又音 X', '又 AB 反/切'과 같은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金周生(1979:8-9)은 《廣韻》 又音 형성의 기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방언의 영향이다. 둘째, 하나의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를 경우 다른 독음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셋째, 자형이 잘

못되었거나 또는 글자가 형성된 시기·지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형으로 서로 다른 音·義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廣韻》外轉 3등운의 照二系의 경우 字意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다른 독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개음 달락 현상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아래는 《廣韻》에 나타난 外轉 3등운의 照二系의 反切과 字意, 그리고 又音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臻攝의 경우 이를 外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표 1> 《廣韻》外轉 3等韻의 照二系 및 그 又音²⁾

韻	聲調	開合	聲母	反切	字	字意	又音		
祭	去	開	生	所例切	幪	殘帛	薛 私列切	殘帛.	
							薛 相絕切	幪縷桃花. 今製綾花.	
					怪 所拜切	翦翻. 《說文》曰: “鉞有鐔也.”			
		合	初	楚稅切	黠	矛戟類	黠 所八切	鳥羽病. 又長刃矛也.	
					菽	椒菽	黠 所八切	苳萸.	
					乘	重擣	祭 此芮切	重擣.	
	生	山芮切		斬	斬斷	祭 此芮切	斷也.		
				窳	葬穿墳也.	祭 此芮切	葬穿墳也.		
				毳	細毛	祭 此芮切	細毛也. 又姓. 出姓苑.		
	仙	平	開	崇	士連切	潺	潺湲. 水流兒	山 士山切	潺湲. 水流.
						孱	不肖也. 《漢書》曰: “吾王. 孱王也.”	山 士山切	孱. 劣兒.
						產		產 士限切	孱陵. 古縣名. 在武陵.
鏐						小鑿	臻 側洗切	《埤蒼》云: 小鑿.	
山							山 士山切	小鑿名.	
山							山 士山切	轉軒.	
合		莊	莊緣切		墮	門聚	山 士山切	門聚.	
					山		山 士山切	門聚.	
					昨	門聚	昨 隔切	門聚.	
					諄	屈也.	諄 將倫切	蹇也.	
					刪		刪 阻頑切	蹇伏.	
					仙	曲卷也.	仙 此緣切	謹兒.	

				眩	目眇視也。	仙	疾緣切	目眇視也。		
				蟻	蛇蟻。蛇名。			-		
		生	山員切	栓	木丁也。			-		
				纂	車軸也。	線	所眷切	車軸		
				撰	述也。	漕	雞皖切	撰述。		
	上	合	崇	士免切	具也。數也。持也。	諄	將倫切	《鄉飲禮》：“僕者降席而遵法也。”或作遵。		
				頭	具也。見也。	線	士戀切	具也。		
				鱖	魚名。			-		
				譟	專教也。	仙	此緣切	善言。		
						線	士戀切	專教。		
				簪	《說文》曰：“具食也。”			-		
				饌	上同。	漕	雞皖切	盤饌		
				腍	上同。見《周禮》。	混	蘇本切	切熟肉更煮也。		
				襪	緣也。	線	渠卷切	重繒。		
				僕	具也。	諄	將倫切	《鄉飲禮》：“僕者降席而遵法也。”或作遵。		
						彌	士免切	具也。數也。持也。		
				譟	專敬。	仙	此緣切	善言。		
						彌	士免切	專敬也。		
				環	珍環。			-		
				僇	見也。具也。	山	士山切	惡罵也。		
		生	所眷切	纂	車軸。	仙	山員切	車軸也。		
				孿	一乳兩子。亦作孿。	諫	生患切	雙生子。亦作孿。		
		開	初生	廁列切	剗	割斷聲。	鏃	初刮切	似茱萸而實赤	
				山列切	穢	煙氣。		-		
				莊	側劣切	苗	草生兒。	質	徵筆切	草牙也。
						黠	鄒滑切	草初生。		
				簪	短黑兒也。	鏃	初刮切	黑也。		
				廠	埽也。清也。			-		
				刷	上同。	鏃	數刮切	刷拭也。		
				喇	鳥理毛也。			-		
				啐	小飲。	祭	山芮切	小歡也。		
咸	入	開	生	山輒切	蕙蒲。瑞草。山輒切。蕙。筴。歛。雲。	洽	山洽切	蕙蒲。瑞草。王者孝德至。則蕙蒲生於廚。其葉大如門。不搖自扇飲食。		

					箠 扇也.	洽	山洽切	扇之別名.
					敵 敵血.	洽	山洽切	敵血.
					霏 小雨.	洽	山洽切	小雨.
				唾	多言.	葉	叱涉切	多口.
						洽	楚洽切	口唾.
						洽	山洽切	唾嚅, 小人言也.
				歐	悒欲.			-

위와 같이 《廣韻》에 출현하는 外轉 3등운의 照二系字는 모두 44개(僕, 課, 纂, 嗒 네 글자는 두 번 출현함)이다. 그 중 10개의 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 이상의 又音을 가지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들 又音이 나타내는 字意가 같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창의 종류(矛戟類)’를 의미하는 글자 鍔의 又音은 ‘단단하게 깎을 붙인 화살, 《說文》에서는 창과 검을 뜻한다.’(剪翮, 《說文》曰: “鍔有鑿也.”)라는 뜻을 가진 怪韻 所拜切과 ‘鳥羽病. 또한 긴 칼과 창을 말한다.(鳥羽病. 又長刃矛也.)’라는 뜻을 가진 黠韻 所八切의 독음이 있다. 鍔라는 글자가 지닌 세 가지 독음이 모두 ‘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인 것이다. 又音을 갖는 34개의 글자 중에서 서로 다른 독음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恠, 腭, 襪, 僂, 劓’ 5개의 글자에 불과하다. 즉, 《廣韻》에 출현하는 44개의 3등운 照二系 중 34개의 예가 又音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29개, 즉, 전체의 85.3%에 달하는 비율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앞서 金周生이 언급한 바와 같이 《廣韻》의 又音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형성된 것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와 같이 동일한 字意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外轉 照二系の 又音을 분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네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같은 攝 내의 2등운의 독음을 갖는 경우이다. ‘鍔³⁾, 灑, 孱, 鏹, 輶, 擻, 踉, 撰, 饌, 擻, 茁⁴⁾, 簾, 刷, 蕙, 箠, 敵, 霏, 唾⁵⁾’가 이 경우에 속하며,

2) 본래의 글자와 같은 字意를 갖는 又音은 볼드체로 표기하였다.
 3) 두 개의 又音 중 怪韻 所拜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4) 두 개의 又音 중 黠韻 鄒滑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5) 세 개의 又音 중 洽韻 山洽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총 18개의 예로, 이 경우가 가장 많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2등운과 3등운의 독음이 둘 다 존재한 것은, 두 독음이 혼동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세음성 개음이 존재하지 않은 2등운의 독음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직 照二系 개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독음과 그렇지 않은 독음, 즉 3등운과 2등운의 독음 간에 어느 한 쪽이 우세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서에는 두 개의 독음이 모두 수록된 것이다.

둘째, 음성과 입성의 독음을 갖는 경우이다. 祭韻의 경우, 즉, ‘際, 鍛⁶⁾, 藪, 隳’가 이 경우에 속한다. ‘際, 隳’는 祭韻과 薛韻 간에 뒤섞인 현상을 나타내며 ‘鍛, 藪’은 祭韻과 黠韻이 뒤섞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祭韻과 薛·黠韻은 각각 상고한어 祭部和 月部에서 기원하였다. 따라서 상고시기에는 음성과 입성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글자가 음성과 입성의 독음을 갖는 것은 상고한어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시기에 두 개의 독음으로 모두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際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글자의 경우 성부가 각각 殺과 率로, 모두 입성자라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동일한 운 내에서 성모만 다른 3등운의 독음을 갖는 경우이다. ‘夔, 斲, 窰, 龔, 眈, 喙⁷⁾, 苗⁸⁾’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 眈이 莊母 이외에 從母의 反切 疾緣切의 독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初母 ‘夔, 斲, 窰, 龔’ 모두 淸母의 독음을 갖는다. 初母와 淸母는 상고한어 같은 성모에서 유래했음을 고려해 볼 때, 照二系의 독음은 淸母의 類隔 反切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조만 다른 3등운의 독음을 갖는 경우이다. ‘箠, 僕, 譟’과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廣韻》뿐 아니라 《玉篇》에서도 나타난다. 아래는 仙韻 崇母 ‘孱, 潺’의 예이다.

6) 두 개의 又音 중 黠韻 所八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7) 세 개의 又音 중 葉韻 叱涉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8) 두 개의 又音 중 質韻 微筆切의 독음을 가리킨다.

<표 2> 《王二》에 출현하는 孱, 潺의 反切

孱	山	平	昨閑反	弱.
		上	士限切	孱陵, 縣在武陵郡.
潺	仙	平	士連反	弱.
		山	昨閑反	潺湲, 水流.
	仙	平	士連反	流兒.

《王二》에서도 《廣韻》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2등운과 3등운의 독음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外轉에 속한 3등운의 照二系는 《王二》와 《廣韻》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서부터 이미 그 독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자료인 《五經文字》에도 2등운과 3등운의 照二系가 뒤섞이기 시작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醜, 壯善反’이 그 예로, 仙韻 照二系를 反切下字로 사용한 山韻字의 예이다. 2등운의 反切下字로 3등운의 照二系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두 글자의 주요모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外轉 3등운 照二系 개음이 전기 중고한어에서부터 이미 탈락되기 시작되었다면, 탈락이 완성된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黃笑山, 麥耘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外轉 照二系의 개음 탈락이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완성되었다면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각종 음운 자료에서 外轉 3등운의 照二系는 같은 攝에 속하는 2등운이나 또는 3등운의 照二系 스스로를 사용하여 反切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경우 外轉 3등 照二系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慧琳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外轉 3等韻의 照二系 反切 상황

韻	反切 (또는 直音)
諄	率, 所律反

仙	孱, 棧焉反	儻, 音撰	馭, 所劣反, 疎劣反
	撰, 饒卷反	栓, 數員反, 疎員反	饒, 牀戀反, 滌戀反, 音撰
	襍, 仕眷反	釧, 穿眷反, 川眷反, 川戀反	

같은 攝 내에 2등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慧琳 《一切經音義》에서는 대부분 여전히 3등운을 사용하여 反切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등운 중에서도 같은 照二系로 反切下字를 삼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면 개음의 탈락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역시 2회밖에 출현하지 않으며 대부분 照二系가 아닌 다른 C2류⁹⁾가 사용되었다. 또한 반대로, 같은 攝에 속한 2등운 역시 3등운의 照二系를 反切下字로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廣韻》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서는 이미 外轉 照二系 개음에 혼돈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慧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는 음운 체계에서는 照二系는 아직 2등운과 3등운 간의 경계가 존재하며, 外轉 照二系 개음의 완전한 탈락은 이보다 시기적으로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한편 臻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臻攝을 外轉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平·入聲의 照二系만 갖는 臻韻이 과연 독립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四聲等子·辨內外轉例》에는 內轉에 대하여 “內轉이란, 脣舌牙喉 四音에는 2등자가 없으며, 오직 齒音에만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內轉者, 脣舌牙喉四音更無第二等字, 唯齒音方具足.)”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四聲等子》는 정작 이 정의에 부합하는 臻攝을 外轉에 귀속시켰다. 黃笑山(1991:37-39)은 이를 비판하며, <辨內外轉例>의 정의를 근거로 臻攝을 內轉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眞韻과 臻韻은 상고 기원이 같으며, 그 분포 상 상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이들 두 韻은 隋代 시가에서도 서

9) 본고는 3등운을 분류함에 있어, 4등칸에 배치된 脣牙喉음을 A류, 3등칸에 배치된 脣牙喉음을 B류라고 칭하도록 한다. 또한 A·B류 이외의 3등운, 즉 일반 脣牙喉음과 설치음을 C류라고 칭한다. C류는 다시 精系·照三系·喻四母 등과 照二系·喻三母 등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A류와 한 류이고, 후자는 B류와 한 류이다. 이는 陸志韋(1939), 麥耘(1992) 등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A·C1류는 [+acute] 자질의 개음 /j/를 가지며, B·C2류는 [+grave] 자질의 개음 /j/를 갖는다. 개음의 표기는 민지원(2009)을 따른다.

로 자유롭게 압운이 된다.(李榮 1962:70) 즉, 臻攝은 본래 독립 2등운이 존재하지 않는 攝이었으나, 《切韻》 이전에 이미 平·入聲에서는 照二系の 주요모음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개음 역시 탈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臻韻과 櫛韻으로 독립된 2등운이 생성된 것이다. 문제는 3등운인 質韻과 2등운인 櫛韻에 모두 照二系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 또한 앞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분포가 상보적이다. 이는 독립 2등운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臻攝의 3등운에 속하는 照二系는 같은 攝 내의 2등운 又音을 갖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隱韻 初母 문제이다. 隱韻은 初母字인 黓을 갖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隱韻 初母에는 이 글자 하나만 수록되어 있으며, 동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 글자가 본래 臻韻 上聲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隱韻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蔡夢麒 2006:606) 《韻鏡》에도 이 글자는 臻韻과 함께 17전에 배치되어 있으며, 震韻 初母의 又音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자 역시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內轉 照二系 介音의 탈락

內轉에는 상응하는 2등운이 없기 때문에, 만약 照二系에 개음이 탈락되었다면 여전히 개음이 남아있는 다른 3등운과 구분하기 위해 照二系 스스로를 反切下字로 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慧琳 《一切經音義》에 출현하는 照二系の 反切下字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照二系 개음의 탈락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慧琳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內轉 照二系の 反切 상황

攝	反切 (또는 直音)		
通	崇, 牀隆反 琨, 楚六反	楯, 所六反 縮, 所陸反, 疎陸反, 撻陸反, 撻六反, 霜六反, 所六反	閔, 芻縮反, 差縮反, 楚六反
止	輻, 滓箕反 醜, 師宰反 俚, 淄事反 翹, 初師反 師, 史緇反 差, 初師反 埃, 事宰反 載, 隋使反 俟, 事宰反, 音仕 滓, 淄史反, 緇史反 揣, 初累反, 初藥反, 初倅反, 初捶反, 初委反 駛, 師載反, 師廁反, 師吏反, 師事反, 師利反 屨, 師尒反, 師履反, 疎倚反, 師綺反, 所綺反, 師宰反 廁, 初事反, 初使反, 楚事反, 初載反, 差載反, 測冀反, 測志反, 測事反	錙, 滓師反 鬣, 所綺反 帥, 衰類反 差, 廁錙反, 廁師反, 測宜反, 楚宜反 衰, 霜歸反, 率歸反, 率追反, 所龜反 淡, 事几反, 事史反, 鋤宰反, 鋤史反 篋, 所擬反, 師綺反, 節宰反, 師宰反 淄, 止師反, 側基反, 滓師反	菑, 滓師反 鬣, 楚宜反 緇, 滓基反, 側基反, 滓師反 躡, 師宰反, 疎宰反, 師爾反 測, 宜反, 楚宜反 率, 追反, 所龜反 鋤, 宰反, 鋤史反 節, 宰反, 師宰反 棖, 率追反, 所歸反
遇	鉏, 助菑反 鬣, 音助 疏, 所初反 鑿, 仕瑜反, 仕虞反, 牀于反 芻, 楚于反, 楚俱反, 惻離反, 惻俱反, 測虞反, 測俱反 芻, 測虞反, 初亏反, 楚愉反, 楚俱反, 楚拘反, 初于反 氈, 數菑反, 數離反, 數俱反, 山于反, 霜芻反, 數芻反, 數于反, 數菑反	沮, 士餘反 楚, 初所反 離, 鋤娛反, 仕于反 礎, 初所反, 初呂反, 初舉反, 音楚	鋤, 助疎反, 助初反 梳, 所初反, 音疏
假	綖, 娑左反	差, 策迦反, 楚迦反	
宕	刺, 瘡爽反 壯, 莊狀反 創, 初壯反 創, 楚莊反, 楚霜反 孀, 所莊反, 音霜 爽, 霜滄反, 所兩反, 霜兩反, 霜講反	裝, 側霜反, 音莊, 音莊 牀, 士莊反, 柴莊反, 狀莊 裝, 壯狀反, 莊狀反, 音壯	側, 莊力反 刼, 楚壯反, 瘡壯反, 初向反 斷, 側略反, 莊略反
曾	駮, 阻蠅反 仄, 俎色反, 音側 嗇, 生側反, 音色 測, 楚側反, 楚力反, 初力反 穉, 所側反, 生側反, 疎力反, 所棘反		側, 莊力反 髮, 初色反, 楚力反 歛, 所側反, 所力反, 音色 側, 楚力反, 楚色反, 初側反

流	鄒, 莊鳩反	遶, 芻瘦反, 芻瘦反, 撈瘦反
	瘦, 所留反	騶, 側牛反, 側愁反, 莊瘦反, 經蒐反
	瘦, 所留反	鄒, 側救反, 鄒宥反, 鄒瘦反, 鄒救反, 側瘦反, 莊瘦反
	撈, 筵鄒反, 筵搜反	颯, 所留反, 瘦流反
	蒐, 所尤反, 所流反	瘦, 沙有反, 搜有反
	筵, 初瘦反	騶, 仕救反, 愁瘦反, 愁救反
	數, 霜婁反	登, 鄒瘦反, 鄒救反, 側救反
	搜, 色鄒反, 瘦愁反, 所周反, 瘦尤反, 霜鄒反, 所求反, 霜留反, 瘦鄒反, 疏鄒反	
	漱, 搜皺反, 叟皺反, 所溜反, 所救反, 搜救反, 疎救反, 霜救反, 搜又反, 搜右反, 搜宥反, 疎宥反	
	深	滲, 參禁反
罍, 側立反		慘, 楚錦反, 初錦反
岑, 仕簪反		森, 澀簪反, 霜簪反, 澀金反
慘, 山林反		讖, 楚禁反, 楚蔭反, 楚譜反
參, 澀簪反		慘, 楚錦反, 初錦反, 側錦反, 測錦反
架, 山林反		澀, 森戢反, 參戢反, 參立反, 霜立反
滲, 初錦反		簪, 戢今反, 側林反, 譜森反, 戢林反, 戢森反
譜, 戢禁反		戢, 莊立反, 側立反, 簪澀反, 簪澀反, 簪立反
諺, 楚錦反		澀, 所立反, 山立反, 師立反, 參立反, 邑立反, 森戢反
慘, 初錦反, 瘡慘反		慘, 森錦反, 所錦反

아래는 위의 표에 근거하여 反切下字의 성모를 攝 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 慧琳 《一切經音義》 內轉 照二系 反切下字의 聲母 상황

反切下字의 聲母	A·C1	B·C2 (照二系 제외)	照二系	계
通	0 (0%)	10 (83.3%)	2 (16.7%)	12
止	6 (8.8%)	31 (45.6%)	31 (45.6%)	68
遇	0 (0%)	21 (47.7%)	23 (52.3%)	44
假	1 (33.3%)	2 (66.7%)	0 (0%)	3
宕	2 (8%)	5 (20%)	18 (72%)	25
曾	0 (0%)	9 (42.9%)	12 (57.1%)	21
流	1 (2.2%)	26 (57.8%)	18 (40%)	45
深	0 (0%)	33 (71.7%)	13 (28.3%)	46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慧琳 《一切經音義》에 출현하는 內轉 照二系는 대

부분의 경우 여전히 C2류를 反切下字로 다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通攝의 경우 慧琳《一切經音義》에 출현하는 12개의 照二系 중 照二系가 反切下字로 사용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하다. 深攝 역시 照二系를 反切下字로 사용한 빈도가 46개 중 26회로, 28.3%에 불과하다. 遇·曾·流攝의 경우는 照二系를 反切下字로 사용한 빈도가 비교적 높기 나타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C2류를 사용한 빈도가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攝에의 照二系는 여전히 C2류와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內轉에 속한 照二系에 여전히 3등운의 개음이 존재했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단, 止攝과 宕攝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먼저 止攝의 경우, 黃笑山(1991:183-187)은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한국·베트남 한자음을 근거로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止攝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한국·베트남 한자음에 나타난 照二系의 예이다.

<표 5> 한국·베트남 한자음에 나타난 照二系의 독음

	師	事	使
한국한자음	sá	sá	sá
베트남한자음	su'	su'	su'

한국 한자음에서 /w/(본고의 /i/)가 아닌 ǎ[ə]를 반영하는 것은 照二系의 독음이 i로 변하기 전의 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베트남 한자음의 照二系가 위와 같이 규칙적으로 다른 성모자와 다른 독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이미 止攝 照二系에 개음이 탈락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慧琳의 反切 역시 '輻, 滄箕反', '緇, 滄基反, 側基反', '揣, 初累反, 初偉反, 初委反' 등 여전히 다른 성모를 사용하여 反切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照二系끼리 反切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며, 기타 攝보다 그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慧琳《一切經音義》에서부터 일부 止攝 照二系에는 탈락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宕攝의 상황 또한 주목할 만하다. 宕攝의 경우 照二系로 反切한 비율이 72%로, 止攝과 마찬가지로 다른 攝에 비해 照二系로 反切한 경향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照二系 개음의 성격이 변화하여 한 류를 형성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는 근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古今韻會舉要》와 明代에 편찬된 《西儒耳目資》에 잘 반영되어 있다. 《古今韻會舉要》에는 宕攝 照二系가 莊字母韻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만약 이 字母韻을 합구 개음으로 재구할 경우, 합구 字母韻인 光 字母韻의 照二系와 충돌한다. 또한 《西儒耳目資》에서도 莊·光 字母韻을 각각 [oɑŋ]과 [uɑŋ]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李新魁 1984:475) 따라서 《古今韻會舉要》의 두 字母韻의 개음은 달랐을 것으로 보이며, 莊 字母韻의 개음은 개구에서 합구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1995:95-96)은 /i/ 개음을 설정하여 이러한 과도적 단계를 재구했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 /i/는 2등 개음 /ɯ/와 음소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i/ 개음이 2등운 개음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慧琳 《一切經音義》의 宕攝 照二系는 照二系 뿐만 아니라 2등운인 江韻字를 反切下字로 삼은 경우가 존재한다. ‘爽, 霜講反’이 그 예이다. 이는 慧琳 시기에 宕攝 照二系の 개음이 탈락되고 주요모음이 합병되어 2등운인 江韻으로 反切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은 근고한어에 이르러 완전히 탈락되는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이 중고 시기에 어떠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이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본고는 전기 중고한어에서부터 照二系 개음이 탈락되기 시작한 흔적

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같은 攝 내에 독립 2등운을 갖는 外轉의 경우, 《廣韻》에 출현하는 外轉 3등운의 照二系는 대부분 3등운의 독음뿐만 아니라 같은 攝 내의 2등운의 독음을 갖는다. 이러한 2등운의 又音은 3등운의 독음과 동일한 字意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廣韻》뿐만 아니라 《王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2등운의 독음과 3등운의 독음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 外轉 照二系의 개음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慧琳 《一切經音義》에는 여전히 外轉 照二系가 C2류를 反切下字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이 시기에 개음 탈락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外轉 3등운의 照二系 개음은 慧琳 시기 이후 근고시기 직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內轉 照二系의 경우,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여전히 C2류를 다수 사용하여 反切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 시기 內轉 照二系에 여전히 3등운의 개음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단, 止攝 照二系의 경우 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한국·베트남 한자음의 독음이 다른 성모자와는 달리 [a]이며, 또한 慧琳 《一切經音義》에서도 照二系끼리 反切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이미 개음 탈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宕攝의 경우도 止攝과 마찬가지로 照二系로 反切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고 이후의 음운 자료인 《古今韻會舉要》와 《西儒耳目資》에 宕攝 照二系가 독립된 字母韻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이미 이 시기에 개음 탈락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參考文獻>

<원전 및 사전류>

- 蔡夢麒(2006), 《廣韻校釋》上下, 岳麓書社.
 丁 度 等(1039), 《宋刻集韻》, 中華書局.
 黃公紹 編輯·熊忠 舉要(1297), 《古今韻會舉要》, 中華書局.(2000年 影印 1版)
 龍宇純(?), 《韻鏡校注》, 臺北: 藝文印書館.
 向 熹(1997),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徐 鍇(?), 《說文解字繫傳》, 中華書局.(1998年 影印 2版)
 余泗永(2000), 《新校互注宋本廣韻》, 上海辭書出版社.(2002年 2版)
 張 參(776), 《五經文字》, 北京: 中華書局.(1985年 新1版)
 周祖謨(1983), 《唐五代韻書集存》上·下, 北京: 中華書局.(2005年 2版)
 《等韻五種》, 臺北: 藝文印書館.(1982年 影印 7版)

<논저류>

- 권혁준(1995), 《古今韻會舉要的 음운 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0), <古今韻會舉要에 반영된 重紐 현상 및 그 상관 문제>, 《中國語文論叢》
 第19輯, 155-190.
 민지원(2009), <中古漢語 3·4等韻의 介音 問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_____(1965),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黃淬伯(1933), 《慧琳一切經音義反切攷》, 臺北: 學生書局.
 黃笑山(1991),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廈門大學博士論文.(文津出版社, 1995)
 金周生(1979), 《廣韻一字多音現象初探》, 私立輔仁大學 中國文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李 榮(1956),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1973年 影印)
 _____(1962), <隋韻譜>, 《中國語文》2, 70-84.
 李新魁(1984), <近代漢語介音的發展>, 《音韻學研究》第1輯, 471-484.
 麥 耘(2002), <漢語語音史上中古時期內部階段的劃分>, 《東方語言與文化》, 東方出版中
 心, 147-166.
 邵榮芬(1964), <五經文字的直音和反切>, 《中國語文》第3期, 214-230.

〈中文提要〉

照二系在近古時期不論二等還是三等介音已經全部消失，在《古今韻會舉要》中就出現在沒有介音的字母韻裏。這可以說在進入近古時期之前中古時期介音已經開始脫落了。本文從內外轉的角度出發對中古三等照二系進行一系列的分析，着重考察了其介音在中古時期是怎樣消失的。

《廣韻》外轉三等照二系大部分也有同攝二等的讀音，並且二等韻的又韻照二等字與三等字的字意相同。這說明同一個漢字既有二等的讀音也有三等的讀音。可以看出這時期外轉照二系的介音已經開始消失。

內轉照二系在慧琳《一切經音義》中仍大多以C2類字為反切下字，這說明這時期內轉三等照二系仍保存着三等介音。可是，止攝照二系就有所不同。韓國和越南的漢字音裏就與其他聲母不同。同時慧琳《一切經音義》的反切具有照二系只切照二系的傾向。從而可以看出止攝內轉照二系的介音已經開始消失。宕攝也有與此相仿的現象出現，《古今韻會舉要》和《西儒耳目資》照二系就被納入到獨立的字母韻裏。

關鍵詞：中古音、照二系、介音、三等韻。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3	2010.1.30	2010.2.5	2010.2.87	2010.2.28